

혁/원/사/탐/방

- 대표이사 : 성 규 동
- 설립연도 : 1989년
- 본 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64-13
- 주생산품 : 레이저마커, CSP Wafer마커, 레이저드릴러, 레이저트리머, 각종 레이저 응용기기
- 전화번호 : 031) 422-2501
- 팩 스 : 031) 422-2502

· (주)이오테크닉스

EoTechnics Co., Ltd.

레이저 활용분야 더욱 넓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제조 회사

이오테크닉스(대표 성규동 www.eotechnics.com)는 최첨단 산업에 제공되는 초고속, 초정밀 장비와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제조 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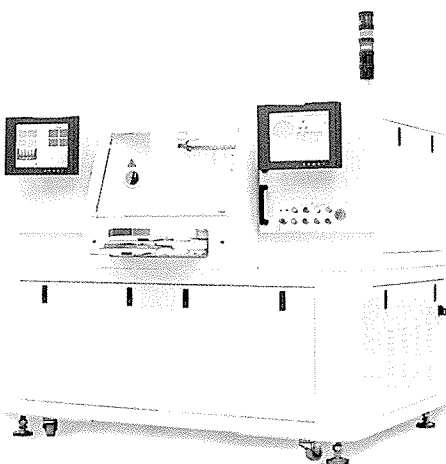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의 본사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10여개국에 해외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수출 물량과 이에 따른 고객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해외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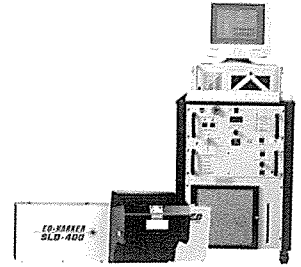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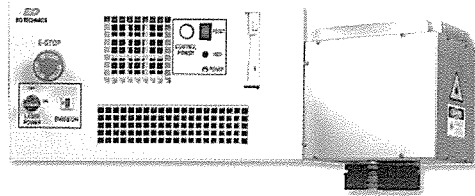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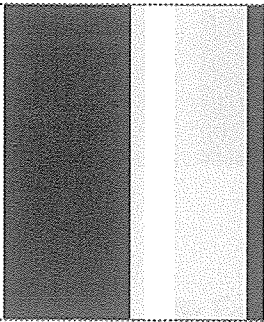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용 Pen Type Laser Marker 개발과 함께 Wafer Level Chip Scale Packaging Marker와 Glass Marker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레이저 마킹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 FPD, PCB, 광통신 등 첨단 디지털 기기와 기타 초미세 가공 생산공정에서 Drilling, Cutting, Trimming, Repairing과 Cleaning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기기인 PCB Laser Driller, Laser Welder, Laser Deflasher, Trimmer, FPD Repair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Laser Glass Cutter의 세계 최초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초일류 레이저 응용기기업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이오테크닉스는 세계적 레이저 응용기기 생산업체로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100% 고객만족 서비스로 12개국 80여개 회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제품 품질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전세계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해외 반도체 장비시장 기술력으로 개척

이오테크닉스는 최첨단 분야인 레이저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레이저기기 메이커로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다. 축적된 기술력은 급격히 초소형화 되는 반도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PCB 및 FPD 시장, 그리고 기술집약을 요구하는 통신장비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장비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번번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이오테크닉스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여 국가 산업발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에 현지법인을 추가로 설립, 해외 현지법인을 10개로 늘렸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높은 해외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한두 개의 해외지사를 갖기도 힘든 상황에서 팔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500억여원의 매출 가운데 60% 가량을 수출을 통해 벌어들여 관련 업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반도체 레이저 마킹장비 개발업체로 잘 알려진 이 업체가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던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레이저의 활용분야를 더욱 넓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성규동 사장은 “지난 90년 NEC, 도시바 등 일본업체가 마스크를 이용한 반도체 레이저 마킹장비로 세계를 주름잡던 당시 마스크 없이 바로 레이저 마크가 가능한 펜 타입 장비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며 “현재는 레이저 마킹장비 하면 펜 타입 장비가 세계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회사는 해외지사를 잇따라 설립하는 등 기술 개발에 이은 공격적인 해외 영업으로 사세를 키웠다.

현재 이 회사는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 애플테크놀로지, 도시바, AMD 등 전세계 50여개 반

도체업체를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필립스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내셔널세미컨덕터 등 세계 우수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편입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인쇄회로기판(PCB) 업계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지난 3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관련 설비시장이 최근 수요업체들의 투자재개와 맞물려 사상 최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이 회사가 2001년부터 준비해온 PCB 드릴러와 LCD 트리머 등 레이저 응용기기 부문의 신규사업이 올해부터 매출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매출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레이저의 Marking에서 세계를 제패한 이오테크닉스는 기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레이저의 활용분야를 더욱 넓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의 레이저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재 / 기획홍보팀 윤희진〉

